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22차 정기총회



OC교협이 총회를 마쳤다. 사진 우측에서부터 네번째가 민경엽 신임회장, 다섯번째는 엄영민 직전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6회 정기총회



남가주목사회의 정기총회. 사진 좌측에서부터 여섯번째가 이운영 신임회장, 일곱번째가 김영대 직전회장.

내실있는 사역으로 지역사회 섬길 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5일 브레아에 위치한 나침반교회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회장으로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를 선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예년과 달리 수석부회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경엽 신임회장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와 미국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족하나마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1년간 OC교협이 화려한 사역보다 내실있는 사역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또 “최근에 남가주교협과 공동으로 진행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인교회 이미지 개선에 큰 힘이 됐음을 보게 됐다”면서 “다 교협과도 힘을 합쳐 이 시대 한인 이민교회가 반드시

앞장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 OC교협은 ▷한인 15세들과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차세대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교역자들과 사모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와 차세대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8.15 광복절 감사예배 등을 개최하고 ▷은퇴한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연말 남가주교협과 공동으로 사랑의 쌀을 모아 어려운 한인들을 돕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OC교협 이사장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가, 이사회 총무에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직전회장)가 각각 선출됐다. 정한나 기자

예수 흔적 가진 목회자들 그 향기 전하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됐다.

26일 오전 11시에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단독으로 공천을 받은 이운영 목사는 이날 총회에 등록된 25명의 회원 중에서 22명이 찬성해 제46대 남가주목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원래 전 회기 수석부회장인 이우형 목사(미주제일교회)가 회장이 되는 것이 목사회의 관례이나, 이우형 목사가 내년 초에 한국으로 귀국해 목회하는 것으로 결정돼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이운영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 선출은 보류돼 차기 임원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으로 당선된 이운영 목사는 인사의 자리에서 “앞으로 목사회는 목사회대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건은 실질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대 제45대 회장은 “기독교교회관 건립은 원래 5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기독교교회관은 남가주목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가주 한인 교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지도력 있는 많은 분들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부 예배에서 설교를 한 김사무엘 목사(증경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인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목회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데 힘쓰자”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세계 한인교회 실태 파악해 대부흥 운동 주도하자

이민신학연구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서베이 실시

최근 북미지역 한인이민교회의 실태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가 이제 그 지경을 전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로 확대한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세계 한인교회 지도자 및 선교사 25인은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정책 모임을 열고 북미지역에서 이뤄졌던 한인교회 실태 조사를 전세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철 소장은 “175개 국에 퍼져 있는 750여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실태를 조사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특히 한인교회가 선교지인 현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도 했다.

북미주 서베이 당시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박희민 목사는 “재정적, 현실적 어려움이 크지만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베이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6개 권역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되는 대규모 작업이며 이를 위해 오상철 소장은 조만간 6개월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디아스포라-선교 정책개발 및 권역별 부흥운동을 위한
‘제 1 회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서베이 정책 모임’
 Policy Meeting for 'The Worldwide Korean Diaspora Survey'

이민신학연구소

이번에 이뤄질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서베이의 관계자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시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크로버 탄소매트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크로버 탄소매트로 건강과 따스함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TWIN	FULL	QUEEN	KING
\$249	\$289	\$349	\$429

전기선이 아닌 탄소 발열체 원단 사용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매트 안을 비교해보세요!

전자파 차단: 매트면에 전기선 대신 공의 미세한 탄소원면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애줍니다.
 전기세 절감: 열효율이 뛰어나 전기사용료를 절감해 줍니다.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취침기능/온도조절기능: 좌우 분리난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초극세사 원단 사용: 고급스러운 품질 패턴으로 실내분위기와 쾌적합니다.
 원적외선 방사를 90%: 일반 전기요와 달리 원적외선 복사열 발생으로 몸 전체를 온화하게 하여 원적외선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YEAR WARRANTY: 확실한 품질보장 제품문제시 1년간 무상수리

베이지, 라벤더
 숙면! 곰팡이 억제! 항균! 냄새 제거!

Los Angeles (213) 389-1111, Fullerton (714) 515-3408, Cerritos (562) 402-3737, San Diego (619) 496-0766, Santa Clara (408) 834-3004

고국 사랑 대잔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지인들께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백인 흑인 라티노 한인이 복음 아래 한 가족 가디나선교교회와 3개 다민족 교회 연합해 복음 전파

가디나선교교회 이호민(영어명 조수아) 목사. 가디나에 처음 '비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한 지 어느덧 25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전도사 시절 장로 부친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한 교회 한 우물을 파 왔다. 한국서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후 샌트랄바이블칼리지를 거쳐 아내와 함께 벤자민신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무직을 맡고 있다. 올해 그의 나이 예순셋.



다민종, 다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아래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

교회 명칭을 지금의 '선교교회'로 바꾼 건 2009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위임령에 근거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를 꿈꾸며 모든 목회의 초점을 선교에 두겠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이 목사는 이 같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아래 지역사회 내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민종, 타민족들과의 연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나뉘'를 체험하는 것.

얼마 전까지 4개 교회가 연합으로 평신도선교학교도 개최한 바 있다. 이 목사는 "네 회중 네 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교육학 박사 출신"이라면서 "필요한 여건을 더 마련해서 평신도선교학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호민 목사

시 이 목사의 목회 철학을 담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LA 지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을 보태거나, 가디나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흠 딜리버리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구제사역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주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전화: 310-532-0191 정한나 기자

실제로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백인, 흑인, 라티노, 한인이 공존한다. 6년 전부터 빈야드 계통의 미국교회와 나이지리아 교회, 라티노 독립교회 등 4개 교회가 가디나선교교회 예배당을 같이 쓰고 있다. 말하자면 평소엔 한 지방 아래서 언어별, 문화별로 예배드리다가 1년에 서너번씩 절기가 되면 뭉치는 격이다. 이들은 부흥회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철야예배도 함께 모여 드린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 각기 교단은 물론 신앙적 색채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아래 '하

한편, 가디나선교교회 성도들 역

한인사회로부터 받은 사랑 한인사회로 다시 돌려 드려요

한미은행 네이버 자원봉사 프로그램



한미은행 네이버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계자들. 사진 왼쪽부터 케이트리 권, 제니 박, 신준혁, 송현석, 데이비드 양 씨.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한미은행이 지난 3월 처음 시행한 '네이버 자원봉사 프로그램(Neighbor Volunteer Service Program)'이 비영리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은행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한인 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4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1년에 16시간씩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커뮤니티 봉사에 나서도록 장려해 왔다. 은행 측에 따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절반인 2백여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총 1500여 시간. 1인당 평균 7시간 30분씩 봉사한 셈이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케이트리 권 씨에 따르면 "유재승 행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난 30년간 한인사회가 한미은행에 보내준 사랑과 관심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비영리단체들과의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타운 내에서는 현재 매달 두 번씩 한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행사를 펼치고 있는 방주교회를 비롯 KYCC(the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등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 방주교회 담임 김영규 목사는 "행사 때마다 한미은행 자원봉사팀이 참여해 배식을 도와줘서 큰 힘이 된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미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봉사활동이 가능한 비영리단체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한미은행 웹사이트(www.hanmi.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hanmineighbor@hanmi.com) 또는 팩스(213-351-5969)로 연락하면 한미네이버 자원봉사 단체 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다.

정한나 기자

나이스크 패밀리컨퍼런스 한결음씩 준비



나이스크가 한국에서 열릴 대회를 위해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이스크(Nyskc World Mission)는 "Nyskc Family Conference Korea 2013"을 준비하면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와 학회장 윤사무엘 목사, 그리고 G.T.S 교수 유제시 목사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역을 성황리에 마쳤다.

첫번째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강성교회(박요일 목사)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다. 두번째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이다. 백석대학교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회복운동'을 이 시대의 교회와 나라, 가정을 살리는 성경적 대안으

로 제시했다. 6백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는 김진섭 백석대학교 부총장, 김연희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주제 발제 강의를 맡은 최고선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회복운동을 회복의 신학적 입장에서 접근해 Life-saving Movement of Restoration of Worship(A Theological Approach of Restoration)을 발표했다.

사회는 백석대학교 예배학 김상구 교수가 맡았으며, 또 다른 발제 '구원 과정에 적용되는 구속사 설교'를 합신대 이승진 교수가, 논평을 홍신대 김창훈 교수가 맡았다.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본 유아세례와 예전'이

란 논문발표는 노학용 박사가, 논평은 송창현 박사가 담당했다.

세번째는 Nyskc Forum이 7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강성교회에서, 그리고 8일 부산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신흥교회에서 각각 열린 것이다. 이 포럼에서는 "Nyskc Introduction, Theology of Restoration, School Method"가 각각 강의됐다.

Nyskc World Mission은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릴 Nyskc Family Conference를 위해 내년 2월 한국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임원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마스 맵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제주,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 문의전화: 310-598-0746 | e-mail: mr.jacob601@hotmail.com
- 주소: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 213-252-9036

김삼환 목사 초청 새성전 이전 부흥회 및 감사예배

◆ **부흥회**
일시: 2012년 12월 1일(토)
시간: 오후 7시 30분
강사: 김삼환 목사(서울 명성교회)

◆ **감사예배**
일시: 2012년 12월 2일(주)
시간: 오후 4시
강사: 김삼환 목사(서울 명성교회)

◆ **음악회** 베토벤 Symphony No.9 합창
일시: 2012년 12월 2일(주) 시간: 오후 4시
Conductor: 권영대
소프라노: 최정원 | M.소프라노: 원순일 | 테너: 양두석 | 바리톤: 채홍석

남가주동신교회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680-9556 (State College Blvd + Yorba Linda Blvd)

미주장신대 개교 35주년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긴급 필요 재정 15만불 중 10만불 후원 약정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지역 신학교로, 미주 지역에 세워진 한인 신학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가 개교 35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포드팰라스 호텔에서다.

미주장신대는 지난 9월 제6대 총장 이상명 박사 취임과 동시에 양질의 신학 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 교육,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복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인 이중언어 교육 등 5가지 비전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미주장신대는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상태다.

이상명 총장은 “미주장신대가 앞으로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신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말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때”라며 “향후 2-5년 이내에 ATS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4명 이상의 풀타임 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신학교 운영을 위해 긴급히 재정 15만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각 교회와 뜻있는 목지자들의 재정적인 후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약정된 후원금은 총 10여만불.

미주장신대는 1977년 9월 1일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 5백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다. 개교 당시 학생 수 30여명으로 출발한 미주장신대는 현재 자체 신학교 캠퍼스 내에서 25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행사에 앞서 KPCA 총회장 강대은 목사를 비롯해 미주장신대 3대 총장을 역임한 박희민 목사, 5대 총장 김인수 목사, 신연성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 등이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강대은 목사는 “KPCA는 19개 교회에 430여 교회, 7만8천여 성도들이 있는, 해외 교민을 대표하는 교단으로, 북미와 남미를 비롯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선교

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으로 발전했다”면서 “이러한 교단의 발전에 발맞춰 미주장신대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 건강한 신학 바탕 위에 철저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만찬, 3부 모금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서는 이상명 총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KPCA 서노회장 이상훈 목사가 기도를, 4대 총장 서정운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하이라이트 3부 순서에서는 김인식 목사(미주장신대 이사장, 웨스트힐장로교회)와 박성규 목사(KPCA 서기, 주님세움교회)가 각각 후원 요청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후원에 동참하려면 직접 학교 주소(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Pay to the order of P.T.S.A.)로 후원금을 발송하거나 웹사이트 (www.ptsa.edu) 우측 하단의 후원 배너를 참조하면 된다.

정하나 기자

교회여! 복음을 삶으로 살라

이재철 목사 초청 청년 토크 콘서트 열려



한국교회 청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꼽히는 이재철 목사(사진 우)가 갈보리민음교회의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측은 이 교회 담임인 강진웅 목사.

역시 이재철 목사였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목회자, 영성과 지성, 감성이 균형잡힌 목회자라는 칭찬은 헛 말이 아니었다. 그가 시무하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교회는 성인 출석 4000명 가운데 40세 미만이 무려 61%를 차지한다. 남가주 지역에서 청년목회로 잘 알려진 강진웅 목사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묻자 그는 “어느 시대이건 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진지한 사람은 늘 있다. 목회는 프로그램이나 비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라고 답했다.

21일 저녁 갈보리민음교회에서 이재철 목사 초청 청년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 목사의 명성을 실감케 하듯, 연휴를 앞둔 이날 3백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참석했다. 이 목사는 토크 콘서트에 앞서 전한 설교에서 한국교회의 아픔을 짚어냈다.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는가? 부흥은 커녕, 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는가? 그는 교회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대전제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당한 시험에서 찾아냈다.

둘이 딱 되는 시험에 관해 이 목사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법칙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 전제한 후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법에 벗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밤을 먹으라고 시험한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하며 “우리의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 말씀의 법칙에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시험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2절의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

는 자를 지켜 주시겠다는 구절을 왜곡해 “무조건 지켜 주시니 한번 시험해 보라”고 다가온다. 이 목사는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대담처럼 우리는 말씀을 왜곡해 믿고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말씀을 왜곡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영적 자살, 타실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무조건 잘 된다”는 식의 긍정적 변형신학에 대해 손소리도 잊지 않았다. 셋째 시험은 세상을 섬기라는 시험이었다. 이 목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은 교회는 결코 새로워 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왜 유럽·미국 교회가 쇠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를 앞세우기 때문”이라 자답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 중요할 뿐이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복음의 삶을 사는 일보다, 건물, 명예, 돈에 마음을 빼앗길 때를 타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개신교회는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124만명이 감소했는데 불교의 경우 “나는 진불교적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무려 2천만명이 늘었다”라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환멸을 느끼고 불교에는 욕심 진리가 있을까 찾고자 떠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개신교인 가운데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이유로 진리의 명품성,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 답한 것은 상당히 시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심일조, 혼전순결, 긍정의 신앙, 주초문제 등에 관해 질문하며 콘서트를 이어갔다. 김준형 기자



미주장신대 후원의 밤에서 이 학교 총장단이 특별 찬양을 부르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김한요 목사가 말하는 1세와 2세간 소통의 비결은?

〈세리토스장로교회〉

EM 독립교회에 본당 내줘... 남가주 한인교회 역사상 첫 사례

세리토스장로교회에 부임한 지 6년 6개월만에 6개월의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김한요 목사를 만났다. 지난 15일 그의 목양실에서다. '남가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1세 목회자', '탁월한 설교가'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그는, 안식 기간 중에 터진 언론들의 두 차례 청빙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렀다.

“청빙 관련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장로교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본인(청빙 대상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의회를 열고 노회를 통해 통보가 왔어요. 물론 우리 노회에서도 다 놀랐죠. 미국교회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여기(세리토스장로교회) 비전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덕분에 신문에 나서 유명해졌죠. 다행히 금방 잊혀져서 감사해요. 누가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뉴욕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웃음)”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코네티컷 하트포드장로교회에서 10년간 목회한 김 목사는 2005년 9월 황보연준 목사 후임으로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해 교인수 2배 이상의 규모로 부흥시켰다. 그는 구속사적인 설교에 남다른 열정이 있으며, 소그룹 사역으로 건강한 교회상을 이루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갈등'과 '본질'이라는 명제를 놓고 해마다 열띤 토론을 펼쳐온 '열린말씀 컨퍼런스'의 주창사이기도 하다.

지난 10월말 '소통'이란 주제로 열린 제8회 열린말씀 컨퍼런스에서 그는 '소통의 관점에서 본 복음적 원리'에 대해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인터뷰에서 “소통의 관점에서 1세와 2세대간 거리를 좁히는 해법은 뭘냐”는 질문에 “설교자 입장에서 '소통'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런데 언어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체로 영어를 잘 구사하면 영어권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며 “1세와 2세 목회자간 상호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리토스장로교회는 지난해 11월 2세 영어권 회중(헤럴드 김 목사)이 부흥함에 따라 EM을 하나의 독립 교회로 세웠다. 이로 인해 한 캠퍼스 내에 조직적으로 철저히 구분된 두 교회가 모이는 형태를 띠게 된 것. 영어권 교회의 이름은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줄여서 CCSC다.

전에는 '한어권 교회(KM)의 부서로서 존재하는 2세 사역'에 그쳤지만, 이제는 2세들이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당회와 제직회를 운영하는 자원으로 비약한 셈이다. 그간 1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한 EM, 즉 CCSC는 5년 전 120여명에서 현재 5백여명으로 4배 이상 교인이 늘어나는 눈부신 성장을 경험했다. 그리고 최근엔 세리토스장로교회가 CCSC에 교회 본당을 넘겨줬다. 남가주 한인교회 역사상 첫 사례다.

이민교회의 중요한 과제인 2세 사역을 위해 많은 1세 목회자들이 2세들을 보듬어 안고 영적 부흥에 대한 갈급함을 지녀 왔지만, 정작 현실은 어떠한가. 1세들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리없는 탈출'이 가시화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메아리만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이다.

1세 목회자들은 2세 목회자들과

의 문화와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도 했고, 2세들을 향한 공감대의 다리를 놓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심지어 1세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2세 사역자가 목회지를 떠나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KM이 EM에 본당을 내어준 모습은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김 목사가 안식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맨 먼저 한 일이 '공간'에 대한 의논이었다. “지난 3-4년간 우리 캠퍼스가 과포화상태를 경험해 왔어요. EM은 친교실이 없어 서서 환영하더라구요. 띄약별에 텐트 하나 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자꾸 부흥하니...” 그간 주일 정오에 세리토스장로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온 CCSC는 계속되는 성장으로 한 번의 예배로는 모든 교인을 수용하기 어려워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간이 부족한 건 KM도 마찬가지. 주일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는 교인들이 늘어만 갔다.

이런 잘나에 대안을 놓고 궁리하다 김 목사의 제안으로 KM은 인근 놀월에 위치한 고등학교 강당 '미러센터'로 예배 장소를 옮기고, 기존 본당을 CCSC가 사용하기로 결정을 찾은 셈이다.

한 성도는 “KM도 장소가 좁아 고민하던 중”이었다며 “김한요 목사님이 굳이 다른 곳으로 갈 것 없이 우리가 양보하자고 제안해 성사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엔 무엇보다 'KM과 EM이 한 지봉 두 교회로 존재하더라도 교회학교는 하나로 섬긴다'는 비전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M이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밖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심이 될 것이라 봐요. EM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네 교회학교가 있어야 하고, 우리 KM도 어린 자녀들이 없으니 교회학교가 필요하거든요. 1-2년 그렇게 가다보면 불편하니까 교회학교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게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당초 두 교회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한 교회학교'를 지향하며 서로가 의존하는 '패밀리' 컨셉을 지향하기로 했다. 비록 지금은 교회학교 중에서 유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KM이 맡고 있지만, EM이 성장해 감에 따라 10-20년 뒤에는 EM이 교회학교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로드맵이다. 35년의 역사를 지닌 세리토스장로교회는 KM의 자녀들이 EM의 첫 구성원이 됐고, 이제 두 교회의 자녀들은 한 교회학교 내에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을 배우나간다.

“우리 자녀죠. 독립했다고 해서 남남이 아니듯 말이에요.”

이들은 실제 가족관계이면서 동시에 '영적 가족' 관계이기도 하다.

한편, KM 성도들은 그간 자체 예배당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다 외부 시설을 빌려 써 보니 아무래도 내 집 같지 않을 터. 한 성도는 “왜 우리가 집 놔두고 사글세 든 마냥 불편을 겪어야 하나”며 불만 소리를 한다. 새로 빌린 건물 축에서 “내부 출입시물을 반입해선 안 된다”는 물음 적용한 것. 이에 “강대상에 물도 못 가지고 가냐”고 항의하자 “그것만 허락해 주겠다”고 통보해 왔다.

김 목사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뭔가를 하시겠구나 싶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내해 주고 계시죠. 좀 불편해도 여기서 CCSC가 1천명 넘어갈 것을 기대해요. CCSC가 건강하게 성장



김한요 목사

해 주는 게 보답이구요.”

KM은 지난 4일부터 새로 찾은 예배 장소인 '미러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10여년 전 은혜한인교회가 사용하던 장소이기도 한 '미러센터'는 좌석수 1800석을 보유하고 있어 한 번에 1500여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김 목사는 “종전 4백명 수용가능한 본당에서 예배를 다섯 번 나눠 드리다 세 번으로 줄이게 돼 편해졌다”고 말했다. 주차 가능 대수는 600대. “공간은 널널한데 들어오고 나가는 데만 30-40분 걸려요. 한 예배에 1천명이 왔는데 예전엔 한 번도 그런 다이 내막한 예배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어요. 1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니 주차장에서 트래픽 잼이 되는 상황을 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트래픽 잼을 해결할까' 하는 또 하나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죠.”

CCSC는 기존 본당에서 오전 10시와 정오 예배를 두 번 드리게 됐다. “EM(은)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 저거 불려고 했지, 감사한 일이지.” 헤럴드 김 목사는 본당을 내어준다는 소식에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KM이 본당을 EM에 내준 건 1.5세 김한요 목사와 2세 헤럴드 김 목사와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목사는 본인 스스로는 1세에 보다 가깝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2세 사역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남다르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당시 2세 사역이라고 하면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대학 캠퍼스였으니. 그간 2세 사역을 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발견한 원리는 2세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KM과 EM 담당 사역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부에서 김한요 목사가 10년간 함께 사역했던 2세 사역자들이 헤럴드 김 목사의 친구들이기도 하다.

헤럴드 김 목사의 한국명은 김형윤. 2000년 고든콘웰신학교 M.Div. 과정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신학교에서 Th.M.을 수료했으며, 동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EM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이원상 목사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며 목회 경험을 쌓았다. 남가주로 이동함에 따라 교단 소속이 종전 PCA에서 세리토스장로교회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로 바뀐 헤럴드 김 목사는, 현재 교단 내 영어노회를 조직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한요 목사는 헤럴드 김 목사에 대해 “말씀 사역이 탁월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 훌륭한 사역자”라고 치켜 세운다. “목양실 문을 누가 노크하는 소리가 나서 보면, 헤럴드 목사예요. 일주일에 꼭 한 두 번씩 찾아와 소파에 앉아 30분씩 대화하고 가고 그랬죠. 물론 사역자 미팅에서도 만나지만, 그런 걸 잘 하더라구요. 그러니 더욱 정이 갈 수밖에요. 서로 얘기하면서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묻기도 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통해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2세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엔 별다른 비법이 있었다기보다 그저 서로 믿고 좋아하니 가능했던 거 같아요.”

이렇듯 목회자간 서로 오랫동안 신뢰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드러난 것. 두 교회 목회자 뿐 아니라 당회간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CCSC는 독립 이후 지난해 3명의 장로가 세워졌고, 이들과 KM의 3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비전을 논하는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를하여 '미래발전 위원회'다. 한 캠퍼스를 공유하니 시간 배정과 행사 스케줄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만나 소통한다.

“교인간의 소통은 그럼 어떻게 하나”는 질문에 김 목사는 “예배를 통한 세대간의 연합”을 꼽았다.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를 통해 세대간의 갈등을 막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소통함으로 참된 '소통'을 경험한다.

이 예배에는 1세와 2세를 넘어 주일학교까지 더해 그야말로 3세대가 연결되는 자리다. 이 예배의 특징은 각 세대가 돌아가면서 호스팅한다는 것. 경우에 따라 초등부가 전체 예배를 주관하기도 한다.

끝으로 그는 “1세들의 밑거름 위에 2, 3세들이 우뚝 서서 교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성경적 영향력을 미치는 주역들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정한나 기자

부임 후 7년만에

교인 수 2배로 부흥

2세 회중과의 소통

EM교회 독립 후에도

여전히 협력과 연합

한 지봉-두 교회-한 교회학교

새로운 교회 모델

결실 거두어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한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한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감기약 처방 /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딱 / 증상별 처방 / 천연 한약재 /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여행자 보험 /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면고베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cvera.com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히브리서 11:31-3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35절 하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이며, 그 부활은 신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28-29에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復活, Resurrection)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원론이라는 신학적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로서, 영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육은 흠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흠을 의지하여 먹고 삽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의 수한이 끝나면 다시 흠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한 것처럼 그 영과 육체가 잘 결합해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아담, 즉 사람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다시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약2:26)”이라고 한 것처럼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하고 답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능히 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시길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고

에스겔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기를 공급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공급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가시다 앞서기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음을 교훈하시기 위해 생기공급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잠재 두 마리가 한 낫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재보다 귀하니라(마10:29-31)”는 말씀처럼 우리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기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실현의 가능성은 과학적인 뒷받침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부활과 예수님을 통해 실질적인 견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어줄 때 그들의 영이 나오게 되며 세상에 흩어져 있던 원소가 재결합해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행위록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용사이며 영웅같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공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러고를 정탐하기 위해 갔다가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능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을 피신시켜 가족들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신앙 모험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생복락을 구원이라는 조건에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300명의 용사를 모아 여러고 성을 함락했고,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한 것처럼 신앙적 용사들의 예는 허다합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명을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 왔을 때 선지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들끼리 서로를 도륙하는 비극을 맞게 하셨으며 유대는 안전한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신앙 영웅적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

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교한 신하들에 의해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단3:27)”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불기운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는 말은 사렘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 다시 살게 된 것과 수넵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며 살다 얻게 된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라야 악행을 받는 과정에서 믿음을 버리기를 강요당하더라도 그 상황을 구차히 벗어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의 소망을 더 나은 자격으로 이룰 수 있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초월하여 희생과 영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조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한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붙잡혀 매인 바 되시길 바랍니다.

열거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신 말씀 중에 “너희 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영과 육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과 육의 결합체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영의 가치는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배라고 비유했

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적 입장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살아온 것은 가치관의 잘못을 저질러왔음을 깨닫고 영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재건하고 개발하여 발전시켜 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는 죽이고, 빼앗고, 망신을 주며,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입장에 해당되는 위협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가치 기준본임을 깨달을 때 어떠한 환란과 행패를 당해도 육체는 흠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파생되어져 온 내 영의 가치가 영원무궁토록 소망적이어야 하고 더 나은 자격으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영적 가치 수호와 개발, 발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죽인다고 해도 이미 육신의 가치기준은 흠덩이에 불과한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즉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더 좋은 부활을 목적으로 웃으며 찬송하며 가까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마귀를 굴복시키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며 지낸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의 가치뿐입니다. 그 영의 가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기를 넘치도록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세속적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시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부활생기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북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p>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성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p> <p>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p> <p>提供 국제 성은복음성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p>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의한인정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p> <p>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p> <p>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s</p>	<p>솔로몬 대학교</p> <p>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여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p> <p>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음을 양성</p> <p>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p> <p>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p>	<p>미주성결대학교</p> <p>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p>

제 4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 43대 남가주교회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2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주소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문의 교회 (323)913-4499 / www.lafgc.com



회장단 *시정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회 장 진유철 목사
- 수석부회장 박호우 목사
- 부 회 장 강홍순 목사 김기섭 목사 김성민 목사
- 박형은 목사 우광성 목사 이동준 목사
- 이정현 목사 정우성 목사 지문성 목사
- 황의정 목사 (각지역교회 회장)
- 총 무 양영선 목사
- 부 총 무 이 일 목사 김철수 목사
- 협동총무 남철우 목사 백낙균 목사(지역교회 총무단)
- 서 기 조요한 목사
- 부 서 기 차관희 목사
- 회 계 홍성관 목사
- 부 회 계 김중태 목사
- 감 사 이흥교 목사 권오성 장로

축하 화환대신에 동부 샌디 헤리케인으로 피해입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내주십시오. 모든 문의는 총무 양영선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13) 255-1725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www.theckc.org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라스크,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달수강 및 실습을 마치고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12월 4일 (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와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여 정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라스크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턴)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및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절망을 넘어서 희망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아시아안환우회 손경미 사모 간증집 출판기념예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통해 암이라는 절망의 늪을 통과한 후 이젠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하고 있는 손경미 사모가 간증집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를 출판했다.

이 책은 암이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감히 지치지 않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부어주시심을 경험한 저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신앙심이 깊었던 처녀 시절, 화교 중국인 남성의 청혼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 미국 이민과 중국인 가정의 며느리로서의 결혼생활, 교통사고와 그 후에 찾아온 유방암 선고, 여섯 번에 걸친 암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으로 채워져 있다.

손 사모는 암과 사투하며 원망과 회복의 시간을 반복하였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아시아안환우회를 세우고 워싱턴주, 밴쿠버주, LA지역까지 지경을 넓힌 그녀는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손 사모는 21일 미주복음방송사에서 LA지역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초청해 출판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손 사모는 “책이 쉽게 쓰여져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삶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라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투병과정) 그렇게 힘들지



아시아안환우회 대표 손경미 사모가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않았다. 그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를 볼 때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쉽게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나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깨우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박신욱 목사는 축사에서 “아름다운 책을 출간하기까지 분명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책과 아시아안환우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한의준 목사는 축사에서 “손 사모는 목회자 사모

로서 성도들에게 마음대로 아픈 것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암이 본인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됐다”며 “이 분이 살아온 흔적을 보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손길을 통해 고통이 진주로 변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귀한 책을 내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손 사모는 현재 LA에 거주하면서 아시아안환우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미주복음방송 ‘소망의 여정’ 코너에서 암 환우와 가족들을 상담하고 있다.

문의) 김자혜 간사 425-248-5129
토마스 맹 기자

암 걸린 성도 위해 40일 금식... 암 낫고 온 가족 전도

한우리장로교회 강지원 목사의 기도 응답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바라볼 때 하는 생각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거야. 나라면 그렇게 못해’. 하지만 여기 얼마 전 40일간 금식기도를 마치고 은혜가 충만한 여자 목회자가 있다. 한우리장로교회 강지원 목사는 원래 40일간 금식기도 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한다.

“저희 교회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이 불쌍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왔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주님이 꼭 치료하실 것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에 돌입하게 됐는데, 사실 40일 금식을 작정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나 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금식기도를 시작하자 20일 정도가 지나갔을까? 원래 강 목사는 목회자로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다. 하지만 사역으로 인해 그럴 여유를 갖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는데, 마침 20일을 더 채워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라는 강한 도전이 왔다고 한다.

“사실 고통이 크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은혜는 40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수요일 예배, 금요일기도회, 그리고 주일예배까지 다 섬기면서 이 기간을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 여인도 고침을 받았지요. 암덩어리가 성장이 묶이고 정지돼 전혀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남아있는 암덩어리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암이 고침을 받은 것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여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큰 감격이에요.”

강 목사는 금식할 때는 괜찮았는데 40일이 지난 이후 완전히 몸에 힘이 빠지면서 큰 고생을 했다고 한다. 아픔을 견디면서, 동시에 아픈 사람들의 심정과 어려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다.

“나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계 안에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이 온 몸이 떨리고 춥고, 40일 동안 물만 마셔서 변비가 극심했고 피골이 상절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강지원 목사

해 빠진 앙상하게 남게 됐죠. 몸무게도 30파운드가 빠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얼굴에는 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식 기간 동안 남을 위해서 간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론은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더라고요. 나의 부족함, 불순물,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연락) 323-702-6709 토마스맹기자

나성소망교회에서 새생명감사축제 열려

나성소망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새생명감사축제를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00여명의 성도와 새가족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1부 축제는 새생명 감사예배로 ‘영생의 길을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김재울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2부 축제는 손상언 웃음치료전문가를 초빙해 웃음 치료 강의를 열었다. 3부 축제는 나성소망교회 남자 장로 집사들로 구성된 ‘남장금’들이 음식을 만들고 준비한 여러가지 메뉴의 특별 음식과 터키구이 등으로 만찬식을 가졌다.

아울러 4부 축제에서는 한인축제 의날 장터에서 맛보던 즉석 텔리만주와 나성소망동산에서 직접 채취하고 수제품으로 만든 겨우살이차 1박스(\$40) 및 김재울 담임목사의 저서



나성소망교회에서 새생명감사축제가 열렸다.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 돈을 부리는 복음/ 라쥬포를 소나무의 꿈” 3권 중 1권씩을 선물로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한편, 지난 25일 주일에는 성경적 재정 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님

의 경제원리’로 미국에서 부자되기’라는 재정세미나가 11시 예배 후에 열렸다. 교회 위치: 4063 Ingraham st. LA CA90005(Wilshire Park 초등학교 강당) 문의: 213-550-7377

토마스 맹 기자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Happy Thanksgiving!

아름다운교회 17년째 선교사 위한 추수감사 예배 및 만찬 열어

아름다운교회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다.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올해도 아름다운교회가 추수감사절마다 여는 선교사 초청 추수감사예배가 어김없이 열렸다.

모든 이들이 가족과 친지를 찾아 떠나는 추수감사절이 오히려 안식년을 맞이해 미국에 온 선교사들에게겐 외로운 시간이다. 가족 생각도 나고 또 잠깐 두고 온 선교지 걱정도 들 수 있다.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 아름다운교회가 이 행사를 시작한 것은 17년 전이다. “추수감사절이 더 외롭다”는 한 선교사의 말 한마디에 그 선교사를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한 것이 시작이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다섯 명이 되더니 곧 35명으로 늘었다. 당시 아름다운교회 전 성도 15명이 35명을 섬겼으니 가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올해도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다.



선교사 가족 100명이 추수감사절 아름다운교회에 모였다. 설교는 고태형 목사.

선교사 부부, 자녀까지 100명이 넘는 복음의 일꾼들이 초청됐고 눈에 보이는 자원봉사자만 40여명이 넘었다. 식당에서 추수감사 식사, 한식,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불, 유기농 먹거리, 책, 장난감 등 두 손으로 다 들 수도 없을만큼 거대한(?) 선물을 마련하고 포장한 사람들의 수는 제외하고다. 선교사 부부를 위

한 수백불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도 큰 선물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평생을 선교하고 은퇴한 정영길 선교사는 “정말 이런 기회가 없다”고 감격했다. 이 말에 15년째 이 행사를 섬기고 있다는 박상용 집사는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으레 선교사님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 둔다. 이전 거의 습관



담임 고승희 목사가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라고 대답했다. 고승희 담임목사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 달라”고 겸손히 말하며 “여러분들이 우리의 복”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예배의 설교는 이웃교회인 선한목자장로교회의 고태형 목사가 “보배를 질그릇에”라는 제목으로 전했다며 미주복음방송의 박신

욱 사장도 특별히 참석해 축도 순서를 맡았다.

한편, 예배 중 탈복자 A 양의 간증 시간이 마련됐으며 간증이 끝난 후에는 A 양의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과 헌신을 위해 모든 목회자, 선교사들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연목회, 추수감사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연세인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한 자리에 모였다.

메이플라워 호에 올랐던 청교도들 102명 가운데 53명만이 살아남아 미국 땅에 도착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원으로 하는 추수감사절. 가진 것이 없고 비참했지만 감사했던 그들의 신앙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할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기리고자 추수감사예배가 18일 저녁에 나성동산교회(한기형 목사)에서 연세대남가주총동문회 주관, 남가주연세동문목회자회(연목회) 주최로 열렸다.

“응답받는 비결”(눅11:1-13)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한중수 목사는 “연

세인들이 예전보다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자들도 많아졌지만, 힘은 없어졌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연세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금 부흥의 불씨를 살리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연세대남가주총동문회 서문준 회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임마누

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예배는 사회 정요한 목사(연목회 회장), 대표기도 김영일 목사(연목회 수석부회장), 특별찬양 연세과이어, 설교 한중수 목사(일바인침례교회), 특별찬양 웨퍼드과이어, 헌금기도 조종근 목사(연목회 회계), 축사 서문준 회장, 지용덕 목사(연목회 증경회장), 광고 고재원 목사(연목회 총무), 축도 한기형 목사(연목회 증경회장) 순으로 열렸다.

토마스 맹 기자

“감사하면 평강 찾아와 ... 감사 습관 들이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3)”

나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가 추수감사주일일 맞아 지난 18일 주일에 연합예배를 드리고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5-17)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광삼 목사는 “기독교의 특징은 감사에 있다. 성경은 세계 어느 문헌보다도 ‘감사’란 말이 많은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 한다”며 “성경을 기록

한 분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가 충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은혜를 깨달은 참 신자라면 누구나 그 가슴 속에 감사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에서 그냥 한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라며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가득차고, 생각과 영혼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힘쓰자”고 했다.

또 “감사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온

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도 평안해진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얼굴도 찡그려지고 자연히 마음의 기쁨이 없어진다. 모든 것을 가져도 감사가 없다면 그는 불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배 후 모든 직분자들이 모금한 헌금으로 준비한 터키 만찬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목장별 대항으로 9개 목장이 참여해, 3행시 짓기, 과일 컨테스트, 찬양경연대회를 열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제일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일 맞이해 함께 예배하며 감사를 올려 드리고 있다.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無 계약기간도 없다! **스팩셀 한정**
개통비도 없다!* **스팩셀 한정**

최대 \$100 크레딧 보상*

기부천사 김장훈이 선택한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 공식 홍보대사 가수 김장훈

AT&T, Qwest, Comcast, Verizon, Time Warner, COX, 한국 070 전화서비스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행사기간 2012년 11월 30일 까지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LA 직영점 (코리타운 갤러리아 304호)
 아이토크비비 213.559.7557 |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100크레딧: 글로벌플러스를 7일째 위해 \$100 크레딧을 드리고, 그 뒤 기일 동안에 미국 및 해외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무료 크레딧은 13번째 날에 적용됩니다. **부호 부가서비스: 미국과 캐나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공됩니다. 모든 옵션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기타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월)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에 적용가능한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문의하십시오.
 †국제 연선료: 국제전화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선료: 한 통화 단위당 1.99달러입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센터에서 100%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제외 다른 국가 국선 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로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십시오.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십시오.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프로모션은 2012년 11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2012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8시~오후 10시30분(PST)

모든 교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로 삼아

[교회를 가다] 나성언약교회 이순환 목사 인터뷰

LA 한인타운에서 북동쪽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나성언약교회. 미국교단인 복음언약교단에 소속해 있는 이 교회는, 올해로 벌써 창립 47년을 맞았으니 제법 나이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1965년 9월 19일 제 1대 김학철 목사에 의해 세워졌고, 현재는 이순환 목사가 제4대 담임으로 부임해 3년째 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 반세기 가까운 역사치고는 성도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까지 합해 70여명이나. 이 땅에 이민자의 교회로 살아남기까지 그간 왜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50여년 된 교회라고 하기엔 딱 봐도 사연이 있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3대 목사가 이단적 신학 사상에 심취해 있던 탓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10개월의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당시 목회자와 교인간 마찰은 피할 수 없었고, 급기야 교인과 교인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은 대다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 어찌 됐건, 당사자 목회자는 교단으로부터 제명되기에 이르렀고, 교회가 거의 초토화 지경에 이르렀음은 불 보듯 뻤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역적같이 살아남은 성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후임자 이순환 목사의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터. 여기서 먼저 이 목사의 약력을 간

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91년 한국서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졸업했고, 9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 연수는 신학생 시절 전도사 때부터 따지자면 딱 26년이고, 7년 전 도미 후 LA 한인타운에서 한 차례 교회를 개척한 바 있다.

“처음에 여기(나성언약교회) 왔을 때가 기억나요. 교회 건물은 반듯한데 저희 식구들 4명을 합해 예배 드리는 성도가 22명이 전부였어요. 비록 역사는 오래 됐지만, 처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다행인 것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렵게 모자란 헌금을 렌트비로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수로 보면 개척하는 것이나 진배없지만, 외형적인 면에 있어선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목사 부임 후 이제 3년. 성도 수는 70여명으로 늘었으니, 예전의 상처가 아물고 안정을 찾은 셈이다.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가 내건 슬로건이었다. 부임하자마자 말씀경회를 밤 먹듯 했다. “그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죠.” 교인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패인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해 교제가 넘치기 시작했고, 이전 교회 문턱을 넘어 주변 이웃에게까지 사랑이 전해지는 일만 남았다.

“전 목회할 때, 목사와 성도 간에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핵심은 ‘말씀 중심’인데,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신앙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있으니 행복하죠.”

그가 목사가 된 건,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면 늘 “순환아, 넌 크면 꼭 목사가 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면 아이를 평생 주의 종으로 살도록 하겠노라고 서원기도를 드렸다. 위로 줄줄이 누나들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다.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 탓에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쫄쫄, 저래 가지고 커서 목사 되면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하며 걱정을 달고 사셨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모친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는지 결국 그는 신대원에 진학했고 소원대로 목사가 됐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97년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 줄곧 그의 든든한 영적 후원자



거친 풍파를 거친 나성언약교회. 이순환 목사가 부임 후 말씀충만한 교회로 거듭났다.

가 돼 주셨다. “살아계실 땐 미처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니 빈 자리가 너무도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건 목회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산이죠.”

“사실 제가 성격이 이래서 목회를 못할 사람인데... 어머니가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내성적인데, 설교할 때만큼은 담대해져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 농담 삼아 저더러 ‘강단용’이라고 말해요. 평생시

엔 수줍음을 타서 사람들 만나 얘기도 잘 못하는데 강단에서만큼은 웬일인지 담대하거든요(웃음).”

이 목사는 앞으로의 목회 인생을 이곳 나성언약교회에서 마감할 계획이다. “교회를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제게 맡겨 주신 양무리 30명이든 50명이든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여 그들의 가정이 말씀의 바탕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큰 목표라면 목표지요.”

정한나 기자

2013년 플랜가입 기간 (10/15~12/7) (올해65세 이상 건강보험)

메디케어A와 B가 있으세요?

C플랜을 무료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랜 경력과 많은 지식으로 내 몸을 관리하듯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선택과 방문이 자유로운 PPO *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HMO

치과, 안경, 한약침, 보청기, 처방약, 헬스클럽 회원권, Viagra & Cialis 처방, MRI, CT촬영, 해외 응급실 등

무료 상담 (323)896-0202 Lic.#0G86101 Hanna Chan Ko **고한나**

쌀 나눔으로 감사의 계절 맞이해

울타리선교회 쌀 300포대 이웃들에게 배부



울타리선교회 나주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인들에게 쌀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지역에 앞장서 온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목 목사)가 감사의 계절을 맞아 주위에 온정이 필요한 그늘진 이웃들에게 ‘쌀 나눔 잔치’를 개최했다.

한인노인회와 한인축제재단, 독도사랑총연맹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일 오전 11시 올림픽과 놀مان디에 위치한 노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15파운드짜리 쌀 300포대가 무료로 배포되었다.

현재 울타리선교회는 매주 월~목

오전 노인회관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 제공 행사를 펼치고 있다. 크리스피크림 도넛과 스타벅스 빵, 파리바게뜨 빵과 함께 음료수가 제공된다.

울타리선교회의 명원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한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식품 관련 기업이나 한인 마켓들의 후원을 이끌어내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나눔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819-3300

정한나 기자

한선희 목사 텍사스 이단대책 세미나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 연구회 회장이며 예장 미주합동총회 이대위원장인 한선희 목사는 최근 애틀랜타 집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에 이어 이번에는 텍사스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한선희 목사

그는 오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라운드락장로교회(김광석 목사)에서 집회를 하며 신천지, 다락방, 여호와의증인 등에 대해 하루씩 할애해 강의한다.

한 목사는 “이단 사이비들도 주께서 오실 때가 다뒀을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한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미혹의 영으로 다가온다”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512-671-9669

토마스 멩기자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랭프와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연말연시 특별세일

항상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3차 파괴 가격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호:15-22그램	\$1,700 \$1,200	\$1,200/LB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4호:5-8그램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 600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1월 5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증전무게
\$600	270그램	약 30 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110그램	약 20~30뿌리	평균 20-30년근	90그램

\$200 산삼은 200그램부터 130그램, 110그램, 90그램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선물 증정

\$ 30

산삼 200불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불 구입시마다/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 50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p>70그램 11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p>	<p>\$200 소매가 \$1,000</p>
<p>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30~40뿌리</p>	<p>\$600 소매가 \$3,000</p>

※ 모든 제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오리지널
Citric Acid
Kosher Approved Organic
Net wt. 8oz. 226g
100% Pure Citric Acid Anhydrous, CAS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or 오리지널8병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100 구매시마다 산삼 1뿌리 공짜선물!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100% 환불 보장

세일기간 :
12월 31일까지

알파
HEALTH
Citric Acid
Kosher Approved Organic
Net wt. 8oz. 226g
100% Pure Citric Acid Anhydrous, CAS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파크센터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목회매뉴얼 - 설교목회

총회목회정보연구소 | 한국장로교출판사 | 282쪽

이 책은 교회의 외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보다는 교인들을 잘 돌보는 목양방법에 치중하여, 가능하면 성서와 교단의 신학적 전통에 입각한 목회적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혁신학의 신학 및 목회 비전과 목회 방향 등 한국교회가 나아갈 목회 로드맵을 제시했다.



성경 속의 전쟁들

마틴 도헤티 외 | 포이에마 | 266쪽

일반 전쟁사기와 저널리스트가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이스라엘 전쟁사. 성경의 주 무대였던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벌어진 20개의 주요 전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약 1,500년간 치러진 성경 속 전쟁들을 현대적인 군사 전략 분석과 성경 내러티브,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자세히 소개한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티모시 켈러 | 복있는 사람 | 64쪽

이 책은 저자가 고전 3:21-4:7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다. 그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삶과 증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과 자아를 이해해야 할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공허함, 고통, 분주함, 낙약함)를 짚어 보고,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회선교는 이렇게

배현찬 | 콤팩트 | 468쪽

저자가 시무하는 주 예수교회는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단에서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이 책은 저자의 탐구와 경험이 담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이론 및 실제가 담겨 있는 사회선교 참고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선교의 전략과 전술의 목회 현장이론 및 실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REVIEW

강준민 목사가 말하는 ‘기다림의 영성’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의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가 〈기다림은 길을 엮는다(토기장이)〉로 돌아왔다. 기다림은 '신비'이자 '역설'이다. 저자는 '오래 참음'과 동의어인 기다림에 대해 능동적 행위라고 말한다. “한때 기다림이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오히려 기다림이 능동적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자는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 있지만, 후회를 방지한다고 한다. 우리

가 조금씩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 뒤에 후회하지만,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 인물들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던(롬 4:18)'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꿈으로 고난의 긴 기다림을 이겨낸 요셉, 왕자 출신이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모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시 40:2)'를 경험한 다윗 등이다. “깨어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 희망의 빛이 절망을 몰아내

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양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기다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기다리는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일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머무는 자리에서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요히 좌절과 분노를 다스리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역설적인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한다. '기다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다



강준민 | 토기장이 | 352쪽

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하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강준민 목사는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주제”라는 기다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품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은 '조급함'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닌가. 저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통해 이를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이대웅 기자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2,490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 (마감) / 3월 11일 (신청가능) / 4월 1일 (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투어멘토 박평식이 추천하는

캘리포니아 여행이야기



아주투어 대표 박평식

센트럴밸리 & 코스트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여행의 측면에서 나눠 보자면,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 해변 등이 속해 있는 LA & 인근지역, 데저트 지역, 시에라 고원지역, 센트럴밸리 & 코스트지역, 노스코스트 & 샤스타지역, 샌프란시스코 & 베이지역 등 6개 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가운데 센트럴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농업지대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 전체 농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 지역 곳곳이 야생동물 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트놀이 및 낚시 등의 레저활동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가가 빼어난 센트럴 코스트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중세의 왕국'이라 불릴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국적인 정취가 감도는 거리에서 대자연의 경관을 만끽하면서 캘리포니아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해마다 3월이면 일명 '블라섬 트레일'(Blossom Trail)이라고 불리는 프레즈노(Fresno) 동남쪽 총 62마일 구간의 과수원 밀집지대에서 펼쳐지는 '봄꽃 축제'도 구경할 수 있다.

눈꽃처럼 새하얀 아몬드 꽃잎이 바람 따라 흩날리고 자두, 살구, 사과, 오렌지 등 과일나무의 꽃들이 형형색색 저마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길이나 있다. 가지가 흰 만큼 꽃을 단 나무가 가득한 길을 지나면 저 멀리로 솟아있는 드높은 산봉우리를 만나게 되고 그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벌판에는 보라색 루핀, 색토란 겨자꽃, 난쟁이 해바라기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가 현란한 봄꽃 축제를 벌인다. 파란하늘과 초록벌판은 봄꽃 축제의 화려함을 더한다.

▶ 프레즈노

프레즈노는 센트럴밸리에서 가장 큰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간에 위치한다. 사막 기후에 가까워 여름엔 100°F 가까이 온도가 오르지 않지만 일몰 후에는 급격히 낮아진다. 겨울에는 흐린 날이 많으며 낮 최고기

온은 60°F 정도. 프레즈노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물푸레나무를 뜻한다. 관광 명소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공한 농장주로 알려진 테오 커니(Theo Kearney)의 저택을 개조한 '커니 맨션 박물관', 센트럴밸리 예술의 거점인 '프레즈노 미술관', 매년 4월 열리는 로데오 전국대회로 유명한 '클로비스', 미국 본토 한인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지이며 이민자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리들리시' 등이 있다. 봄에는 꽃 축제, 여름에는 과수원 축제, 가을에는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절 축제가 열리는 등 계절별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 리들리시

프레즈노 동남쪽 약 20마일 거리에 있는 리들리시는 미국 본토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의 첫 정착지로, 해외 독립자금 조성의 중심지 역할을 한 미주 독립운동 유적지다. 초기 정착자들은 하루 임금 50센트 과일농장 노동자로 일하며 모은 자금을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로 보내고, 항일을 위해 한인 전투비행사 양성소도 마련했다. 3.1운동 당시 이곳에서 함께 행진을 하며 고국의 독립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리들리시의 중심에는 2010년 11월 건립된 애국기념비가 있는데 한국의 독립문을 본떠 4분의 1크기(약 14피트)로 만들어졌다. 그 앞으로는 안창호, 이승만, 한시태, 김홍, 김형순, 김종림, 김용중, 이재수, 송철, 윤병구 선생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한 애국지사 10인의 추모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숨겨진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곳이다.

노스코스트 & 샤스타 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 주로 이어지는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노스코스트라 부른다. 여유롭게 와인 과 포도밭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고급 와인 생산지 '소노마', 고풍스러운 목조건물이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는 '에텐의 동쪽' 촬영지 멘도시노 등이 이곳

에 위치한다. 밀려오는 태평양의 파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선과 절벽이 만들어내는 절경은 미주 최고 수준으로 손꼽힌다.

샤스타 지역은 노스코스트 우측 지역을 말하며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곳이다. 캘리포니아의 몰랭크 역할을 하는 샤스타 호수, 웅장한 침엽수 숲을 가진 샤스타 산 등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이는 풍부한 자연 경관이 가득하다. 캐나다 국경에서부터 이어지는 케스케이드 산맥의 최남단에 위치한 활화산인 래스화산 국립공원에서는 변화무쌍한 활화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 레드우드 국립공원

21세기에 들어서 두 번이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공원이 바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다.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의 하나인 레드우드가 가득한 이곳은 아침이면 으레 지척거리 조각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안개가 가득하다. 안개가 조금씩 벗겨지면 햇빛이 비쳐 들고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총만해지는 신비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그리고 태고부터 존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레드우드가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낸다.

그 키가 하도 커 꼭대기가 보이지 않고 돌리는 보통 대여섯명의 성인이 손에 손을 잡고 감싸 안아야 할 만큼 두터우며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웬만한 산불에는 타지도 않는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중간 가지를 스스로 떨어뜨리는데 밑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기에 '과부 만드는 나뭇가지'란 별명이 붙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300여마일 거리에 걸쳐 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유레카 북단에서 크리센트까지의 50마일 구간은 해변과 접하고 있어 우뚝 솟은 절벽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숨막히는 절경을 이룬다. 봄이나 가을에는 이동하는 고래 떼를 볼 수 있으며 갈매기, 물수리, 물개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레드우드는 목질이 단단하고 결이 고르며 열이나 해중에 강해서 건축자

재로서 대단히 환영받았기 때문에 19세기 골드러시 이후로 많은 부분이 소실돼 이전의 200만 에이커나 되던 광대한 레드우드 지역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 1968년 10월 2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1980년)으로, 지구생태계보존지역(1983년)으로 지정됐다.

샌프란시스코 & 베이 지역

낭만적인 항구, 짙은 안개 사이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붉은 현수교, 언덕 위를 달리는 케이블카, 약명 높은 죄수들의 감옥 알카트라즈 섬, 한번도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친숙한 여러 팝송, 할리우드 영화, 그림엽서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곳을 한번쯤 다녀온 것처럼 느끼게 마련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처럼 정서적 거리감이 적은 도시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되면 자유가 넘치는 도심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이 가능한 베이 지역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된다. 시내 북동쪽 그트머리에 있는 피셔맨즈 워프를 방문해 커다란 '게그림'이 걸려있는 제퍼슨 거리를 방문해보자.

무명 예술가들의 공연이 수시로 펼쳐지는 이곳은 예전 이탈리아 어부들이 선착장으로 이용하던 곳이다. 피셔맨즈 워프 앞바다 자그마한 섬 알카트라즈는 1934~1963년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의 형무소로 사용됐던 곳으로 단 한 명의 탈옥수도 용납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곳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 '알카트라즈의 탈출', 손코네리의 '더 락' 등으로 이제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는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코밸리가 있다. 자동차를 타고 약 40분쯤 북동쪽으로 가면 발리호라는 조그만 도시를 만날 수 있는데 '동물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마린 월드 아프리카 USA'가 있다. 독특한 나비농장과 환상적인 돌고래 쇼가 있어 볼 만하다.

〈자료제공: **US아주투어**〉

LIFE IS STRAWBERRY

아주 크리스마스 유럽

와~ 시실리!

아주 특점

시실리를 못보면 유럽을 다 보신게 아닙니다!

살아서 한번 더 '꼭' 가고 싶은 이태리 시실리

영화 '대부'의 촬영지!

겨울도 따뜻한 지중해의 보석!

로마제국과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p>시실리+서유럽 <small>출발 8월 11일</small> \$3,499</p> <p>시실리 (팔레모항구, 몬레알레, 아그리젠토, 시라쿠사, 타오르미나) 런던, 파리, 사모니, 몽펠랑, 밀리노, 피렌체, 까잔치아노, 로마,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p> <p>파리특선 <small>출발 8월 6일</small> \$1,999</p> <p>베르사유,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 노트담 성당, 오르세 미술관, 몽마르트 언덕, 화가마을 비르비종, 몽텐펠로, 트와르 계곡, 쉬생 소성, 앙부아즈 성</p>	<p>투어멘토 박평식 교수 동행</p> <p>시실리+로마 <small>출발 8월 8일</small> \$2,799</p> <p>시실리 (팔레모항구, 몬레알레, 아그리젠토, 시라쿠사, 타오르미나) 로마, 티볼리, 카피올레,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p> <p>핵심서유럽(5개국) <small>출발 8월 7일</small> \$2,799</p> <p>런던, 파리, 사모니, 몽펠랑, 밀리노, 피렌체, 까잔치아노, 로마,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p>
--	--

시실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태리의 숨어있는 진주, 시실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가 아심찬 연말특선으로 전율의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TGV, 유로스타, 나폴리-시실리는 페리를 타고 낭만을, 시실리-로마는 항공이동(\$500상당)으로 편안함까지! 이 모두 포함을 포함하는 완벽코스!

아주 좋은 여행이야기 -

아주관광 대표 전화 **(213) 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os Angeles CA 90005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070-7449-9100 아주크루즈: 213-388-7000 동부: 800-956-3939 토렌스: 310-217-0770 O.C/샌디에고: 800-994-1233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소: 새미러 힐스 대학 옆 한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태양광 에너지 전문 Tree Solar Inc

솔라 전기 컨설팅 회사

태양에너지 교육

James Han 310.991.2135
905 Diamond Ave, #9 South Pasadena, CA 91030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발휘하므로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드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식은 살리니! 자동차 핸들 커버 \$30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외,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www.myopenbank.com



이 아이에게
물려 주고 싶은 건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Min Kim
회장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 | 발표일자: 2013년 2월 28일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가 확실하게

줄어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는 자체 파이낸싱 및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 페이먼트를 확실하게 줄어드립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페이먼트 플랜!! 오늘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만나보십시오.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12월 1일-31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다른 워런티를 사시겠습니까?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십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596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Residual: \$30,659
 T.D.O: \$5,399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ER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2013 SONATA GLS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121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46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